

# 오전엔 7~9시까지... 단속시간 줄여 민원 최소화

### 광주시 시내버스 CCTV 주정차 단속 어떻게 바꾸나

## 기준 4개 노선에 6·19·27번 3곳 추가 노점·택배차량 등 생계형 차량은 제외

요즘 운전자들은 경찰이 아니라 시내버스 노치를 보고 다닌다. 무심코 길가에 차를 세워놓으려다가, 또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잠깐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하려다가도 뒤따라오는 시내버스만 있으면 바로 핸들을 돌리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됐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촬영,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신 풍속도'다. 광주시에서는 단속시간을 줄이고, 사진 관독을 엄격히 하

는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았다. ▲단속 대상 노선은=광주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순환01번(3대), 진월07번(2대), 첨단09번(2대), 봉선37번(3대)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10대의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부착,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중앙06번(2대), 송정19번(2대), 봉선27번(4대) 등 3개 노선 8대의 시내버스가 추가된다.

▲어떻게 단속하나=순환01번을 예로 들면, 이 노선을 운행하는 20여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3대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적외선LED조명장치 설치돼있다. 이들 버스 3대는 차례로 지정노선을 주행하면서 길가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되는데, 앞서 간 버스에 찍힌 차량이 뒤따라가는 버스의 카메라에 또 다시 찍히면 '불법 주정차'로 분류된다.

▲사진관독은 어떻게=단속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정보는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광주시청 교통안전과에 설치된 서버(Server)로 보내진다. 운영요원들은 사진관독 과정을 거쳐 전용차선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지만,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다음날 고지서를

발급한다. 단 한 번만 찍혀도 '위반'이 되는 전용차선 침범과는 달리 불법주정차 관독은 번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차간격이 10분 이상인 두 대의 시내버스에 연속으로 촬영됐더라도, 조금이라도 차량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불법주정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야간에 찍힌 사진은 육안으로 번호판 숫자를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흐릿해 관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진 관독을 하는 운영요원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다.

▲단속 시간은=불법주정차의 경우 종전까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무차별단속 논란을 해소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는 오전 7시~9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단속시간이 줄

었다. 전용차선위반 단속시간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9시 그리고 오후 5시30분~7시30분까지다. 불법주정차와 전용차선위반 모두 토요일과 공휴일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또, 전 통시장 인근에 서있는 노점차량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차량, 그리고 교통호르몬에 장애가 없는 구간에서 있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효과는 있나=시내버스 카메라 단속 제도기간이었던 지난 2011년 7~8월에는 하루 평균 1300여 건의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선위반 차량이 단속됐지만, 정식으로 단속이 시작되자 무려 80%가 감소한 하루 260여 건으로 줄었다. 최근엔 하루 평균 160건으로 단속건수가 대폭 줄었다. 이 가운데 전용차선위반은 1.7건 정도에 불과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 새 얼굴 “국민 눈높이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김재석 서부경찰서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재석(51) 신임 광주서부경찰서장이 8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해남 출신인 김 서장은 “내 고장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은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

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안도서장, 북부서장, 광주지방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순천(여·50)씨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박정렬기자 halo@

## “신뢰·자부심 키워 강한 경찰 만들 것”

이기옥 남부경찰서장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강한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8일, 22대 광주남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기옥(54) 서장은 “즐거움 조직문화를 만들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며 “특히,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경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이 서장은 간부후

보 36기로 1988년 임용된 뒤 담양경찰서장, 인천지방청 생활안전과장, 서울청 금천서장, 보성 경비 항공과장 등을 거쳤다. 부인 정찬경(여·49)씨와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뒀다. /박정렬기자 halo@

## “친절·봉사...감동 주는 경찰 되겠다”

김원국 공산경찰서장



“주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 주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8일 취임한 김원국(55) 광주공산경찰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산을 범죄와 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자력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친절과 봉사를 경찰의 으뜸 덕목으로 생활화하겠다”며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엄정한 법치집행을 확

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김 서장은 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나주서장과 목포서장, 전남청 정보과장을 역임했다. 부인 박양자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2013카잔하계유니버시아드가 지난 6일 개막식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 카잔U대회, 광주U대회 디딤돌 삼는다

33명 참관단 파견 벤치마킹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올해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 러시아 카잔 현장을 찾아 광주U대회 홍보와 함께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벤치마킹에 나섰다. 광주U대회조직위는 8일, 조직위 직원과 전문가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읍저버프프로그램 참관자를 카잔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읍저버프 프로그램은 유니버시아드 시설과 대회 운

영 등에 대한 정보를 차기 대회 개최지와 공유하기 위해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대회 현장에서 운영하는 지식전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카잔대회의 35개 업무분야를 참관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 또, 대회 선수촌 국제센터를 비롯한 16개 관련 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카잔대회를 입체적으로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광주U대회조직위는 카잔대회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축적, 반영함으로써 광주U대회를

이전 대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차별화된 대회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광주U대회조직위는 이와 함께 FISU회원국과 각국 언론매체에 차기 개최도시인 광주와 광주U대회 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6일부터 카잔 대회 선수촌 내 국제메인센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국제스포츠계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선수단, 임원진 등에게 광주U대회 비전을 알리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1개월 하루 300t 음식물폐기물 처리 순수 국내기술 적용 성능 입증

광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한 지 1개월이 지났다. 광주시가 총 사업비 691억원을 들여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한 이 시설은 하루 300t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150톤을 처리하는 광산구 동곡동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과 함께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로 과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광주지역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300t의 물량을 8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처리공정이 3계열로 나누어져 있어 1계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시설은 이와 함께 읍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부터는

읍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돼 읍폐수 처리설비를 갖추지 못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위탁처리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읍폐수의 폐수 농도를 낮춰 제1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하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사료화와 혐기성소화의 복합공정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었지만,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대건설(주)과 지역업체인 남광건설(주)이 개발한 순수 국내기술을 적용, 3개월간의 신뢰성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입증받았다. 특히, 기존 민간음식물자원화 시설은 t당 처리 수수료가 6만 4880원이었지만 광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t당 4만5000원에 불과해 시민 1인당 216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획·운영함으로써 타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신제품 기적공인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